

5/17(화) 느헤미야 5-7장 대적들

공동체에 두 가지 적이 찾아왔습니다.

위협하는 대적들과 조용히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입니다.

산발랏 등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.

대적들은 왕의 호위대에 둘러싸여 귀환한 느헤미야에 긴장하며
외적인 조롱과 위협, 함정들, 반역이라는 모함, 선지자 포섭 등
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괴롭혔습니다(4:2-3,6:2-4,6,10).

느헤미야는 왕의 허가와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

세상 권위를 앞세워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원합니다(2:20,4:4,6:14).

영적인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대적들의 움직임에 대처합니다(6:1-14).

때로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다독이며(4:10-12)

한 손에는 병기를, 한 손에는 연장을 들게 하고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(4:18).

한편, 공동체는 죄의 문제로 분열되고 흔들립니다.

귀환 후 기근과 흉작 등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(5:3, 학1:10-11)

고리대금업, 토지를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.

빈부격차와 율법에 위배되는 불법들로 공동체가 오염되고 분열되었습니다(5:7-8).

스스로도 총리로서의 권리를 취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는(5:14)

대회를 열어 관련자들의 다짐을 받습니다(5:12).

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(6:15).

성벽 재건은 단지 외벽을 쌓아 방비하는 공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

공동체의 내부 균열을 메우고 영적 방어막까지 견고히 하는 대공사였습니다.

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(6:16).

그럼에도 봉헌식까지는(12:27)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.

영적인 정비와 언약갱신 이후에 비로소 온전한 봉헌식을 치를 것입니다.

나와 공동체를 공격하는 적은 무엇입니까?

- ❶ 실제적인 문제, 구체적인 대상과 사안은 무엇입니까?
- ❷ 마음과 생각, 영적으로 찾아오는 미혹과 유혹들은 무엇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느헤미야 5-7장